

교환학생 수학보고서

1. 기본정보

학과	관광경영학과	이름	김xx
파견국가	미국	파견도시	세인트폴(미네소타)
파견대학	Concordia University	파견기간	2018 2학기~2019 1학기
귀국여부	0		

2.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Concordia University는 비교적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큰 마트나 식당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. 캠퍼스 규모는 순천향대의 1/3 정도로 작으며, 겨울이 길고 매우 춥기 때문에 기숙사와 강의실들이 대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. 기숙사는 네 명이 한 호수로 독방을 쓰는 Holst hall 에서 두 학기 동안 지냈는데 거실이랑 주방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요리하고, 영화를 보는 등 함께 놀면서 생활하기에 좋습니다. 학교가 작다 보니 학생들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서 수업이 몇 개씩 겹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. 캠퍼스에 다니면 대부분 아는 얼굴들이라 캠퍼스 전체 학생들이 다같이 어울려서 노는 분위기 입니다. 다만 다양한 국가에서 온 국제학생들이 많지 않고 한국인이 매우 적기 때문에 중간중간 homesick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. 학교 내 이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 어플을 다운받아서 매주 행사를 확인하여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. Concordia 는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교양 수업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. 하지만 dance, music 분야의 수업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듣기 힘든 수업을 즐겁게 들을 수 있을 것 입니다.</p>

2018-2학기 수업	<p>본인이 수강한 과목,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.</p> <p>예) 수업내용, 수업방법, 과제, 수업준비, 추천과목, 비추천과목 등</p>
	<p>Consumer behavior – 소비자행동론은 교수님께서 적극적이시고 유쾌해서 즐겁게 참여했던 수업입니다.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과 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, 매 수업 시간마다 발표를 합니다. 과제는 한 학기에 10-12pg 분량의 에세이 4개 정도를 썼고, 파이널 조별 발표가 있었습니다. 강의를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게 이끌어주셔서 추천하고 싶은 수업입니다.</p>
	<p>Organizational behavior – 수업시간에 임의적으로 조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. 발표도 많이 하고 조별 과제가 두 번 정도 있습니다. 매주 퀴즈를 보고 과제도 매 수업마다 있습니다. 미국 수업은 점수 비중이 큰 과제보다 매일 꾸준히 해야 하는 과제/퀴즈가 많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</p>
	<p>Interpersonal Communication - 1학년들이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보다 수월합니다. 커뮤니케이션 수업이라 수업에서 교수님, 학생들과 의사소통 하는 시간이 대다수이고 큰 발표를 두 번 정도 합니다. 매 주 수업시작 전에 퀴즈를 보기 때문에 미리 예습을 해가야 합니다. 전공에 상관없이 다양한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고 과제나 시험 또한 쉬워서 편하게 잘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.</p>
	<p>Class piano – 교양 수업의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선택한 수업이었는데 정말 피아노의 기본부터 알려주기 때문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이 들으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. 매 수업마다 연습을 해와서 검사를 받고 가끔씩 이론 프린트 숙제도 있습니다. 7명 정도가 같이 듣는 소규모 수업이어서 같은 수업 학생들과 친해지고 말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. 이탈리아 교수님 이셨는데 되게 친절하시고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셔서 이 수업 또한 즐겁고 편하게 잘 들었습니다.</p>
	<p>Introduction to dance – 춤 추는 걸 좋아하고 춤에 관심이 많으면 추천합니다. 전공이 아닌 이상 한국에서는 듣기 힘든 과목인데 미국에서 재즈, 무용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. 학기가 끝날 때쯤에 댄스 쇼케이스를 하기 때문에 댄스 수업을 들은 학생들끼리 무대를 준비하고</p>

	<p>연습합니다. 교수님께서 창작하신 안무를 배워서 전통 댄스, 뮤지컬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춤을 배울 수 있습니다. 물론 춤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도 할 수 있고 시험도 봅니다. 퀴즈도 한 학기에 4-5번 정도 봤습니다. 정말 추천하는 수업입니다.</p> <p>Foundatio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– 유학생, 교환학생들이 듣는 수업입니다. 두 개의 반으로 나뉘어 수업이 진행되었고, 보통 미국 문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조별 발표과제가 2~3개 정도 있었고 1학점 수업이니 친구들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.</p>
2019-1학기 수업	<p>Advertising and promotion – consumer behavior 교수님께서 하시는 수업이어서 이 수업 또한 즐겁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수업시간 발표가 굉장히 많으며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. 한 학기에 에세이 4번 정도 있었고 퀴즈도 가끔씩 있습니다. 수업시간에 활동지를 나눠 주시고 수업이 끝난 후 내고 가는 것으로 출석체크를 합니다. 적극적으로 발표를 많이 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으면 수업에 더 재미있게 참여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Corporate finance – 재무, 회계 관련 과목에 정말 취약한데 생각했던 것 보다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던 수업입니다. 중간, 기말, 퀴즈, mini test까지 시험이 굉장히 많아서 시간을 많이 썼던 과목입니다. 하지만 어려운 과목인 만큼 교수님이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교수님 오피스에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했고 교수님도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. 개인 발표 과제가 학기 말에 하나 있었고 그거 하나 제외하고 큰 과제는 딱히 없습니다.</p> <p>Principles of financial accounting – finance 수업과 마찬가지로 회계, 재무 과목이라서 한국에서 회계 수업을 안 들었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. 수업시간 퀴즈가 자주 있고 wiley plus 라는 과제 시스템을 다운받아서 거의 매일 숙제/시험이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 수업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저처럼 회계를 어려워하고 잘 못한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. 한국에서 회계원리를 배웠을 때 흥미를 느꼈고 미국에서 영어로 회계를 한 번 배워보고 싶다면 들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.</p> <p>Managing in a global economy – 수업 시간에 조별 활동이 많고 발표가 있는 수업입니다.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조 별로 나라를 하나 선정하여 조사하고 발표하는 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.</p>

	<p>외국인 학생이라면 교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수업시간에 예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수업시간에 컴퓨터로 보는 퀴즈가 있고 중간, 기말고사도 따로 봅니다.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쉽게 수업에 따라갈 수 있고 적극적으로 발표에 참여한다면 교수님께서도 더 관심을 주시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</p>
<p>프로그램 운영</p>	<p><i>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</i> 예) 오리엔테이션,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, 담당부서, 담당자명, 상담 프로그램 등</p> <p>Concordia University는 가을학기 시작 전 교환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OT를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. 이 때 학교에 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임으로 꼭 참석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. 가을학기 중간쯤에 International week 이 있는데, 이 중 하루 한국 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순천향대학교를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. ISS 담당자 선생님은 Tiffany 이고, 교환학생 및 유학생 학업 관리를 해주시는 선생님은 Drew 입니다. 이 두 선생님을 찾아가면 학교 활동에 궁금한 정보나 수업, 시간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Concordia는 작은 학교이지만 학생들을 위한 행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이벤트 스케줄을 본인이 잘 확인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</p>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<i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i></p> <p>미네소타는 겨울이 정말 길고 정말 춥습니다. 추위를 싫어한다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있을 당시 그 해가 유독 더 추워서 정말 춥고 힘든 겨울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여름은 도착하고 한 달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여름 옷 보다는 겨울 옷 위주로 챙겨 가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패딩 같은 겨울 외투는 짐이 크지만 꼭 챙겨가세요! 미네소타 사람들은 추위에 익숙해서 인지 정말 추운 겨울날에도 반팔, 반바지 패션을 캠퍼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있었을 때에는 첫 눈이 10월 중순에 왔고 겨울 외투도 10월 중순에 처음 꺼내 입었습니다. 목도리, 장갑 등 겨울에 사용하는 것들을 꼭 챙겨가세요.</p>
안전	<p><i>현지 안전 상황</i></p> <p>학교 앞에 홈리스들이 종종 나타납니다. 고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매일 있는 홈리스도 있습니다. 미국은 저녁 6-7시만 되어도 길거리에 사람이 거의 안 다니고 매우 어둡기 때문에 캠퍼스 안이라도 혼자 늦게 돌아다니지 마세요. 밤 늦게 메트로를 타고 학교에 돌아오는 길에 마약한 이상한 사람을 몇 번 만난 것을 제외하면 안전에 대해 위협을 크게 느낀 적은 없지만 절대 혼자 밤 늦게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</p>

<p>숙소</p>	<p>학교기숙사(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) 홈스테이 (<input type="radio"/>) 외부 숙소(<input type="radio"/>) 기타(<input type="radio"/>)</p> <p>기숙사 이름, 숙소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Holst Hall 에서 두 학기 동안 생활했습니다. 한 호수를 4명이서 독방으로 쓰는 기숙사 이고 화장실은 두 명 이서 공유, 주방과 거실은 네 명이 함께 공유합니다. 주방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마켓에서 장을 봐와서 친구들과 요리를 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. 베이킹 할 수 있는 오븐이 있기 때문에 타겟에서 베이킹 믹스를 사와서 케이크, 쿠키를 만들어 먹었습니다. 기숙사 시설이 좋았고 분위기도 각 방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재미있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에 좋습니다. 너무 늦은 밤에는 조용히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학생증 카드로 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는 형식입니다.</p>
<p>식사</p>	<p>학교 Meal Plan (<input type="radio"/>) 학교식당 개별이용 (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) 홈스테이 (<input type="radio"/>)</p> <p>외부식당 (<input type="radio"/>) 직접 요리 (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) 기타 (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)</p> <p>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학기 초반엔 학교 카페테리아를 자주 이용했습니다. 학교 주변 식당에서 먹을 때도 종종 있었고 마켓에서 장 봐와서 친구들과 요리해서 먹을 때가 가장 많았습니다. 학교 식당에서는 Spinach wrap 자주 먹었는데 그나마 학교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이었습니다. 다른 음식들은 너무 짜고 자극적이라서 맞지 않았습니다.</p>
<p>교통</p>	<p>통학방법, 시내교통, 주요도시 이동 관련</p> <p>학교 바로 앞에 메트로가 있기 때문에 green line/blue line 타는 방법만 알고 있다면 가까운 몰이나 moa, uom 등 쉽게 갈 수 있습니다. 미국 학교는 수업이 대부분 오후 일찍 끝나기 때문에 평일에도 수업 끝나고 친구들과 가까운 몰에 쇼핑 가거나 옆 대학교로 맛있는걸 먹으러 가기도 했습니다. 사실 메트로보다 리프트/우버를 가장 많이 이용했는데 둘 다 어플을 다운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</p>

--	--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 22,090,000

단위 : 원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	1,800,000	인천-미니애폴리스 (대한항공)
Fees	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,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.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. 예) University Support Fee, \$3,000	
보험료	자매대학에서 원하는 보험을 샀는지,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.	
숙소	Holst hall (기숙사) - 10,029,000	10,290,000원 (student fee포함)
식비	한달 300,000원 정도 (매달 다름)	
교통비	리프트, 우버	
책값	600,000원 (주로 아마존 이용)	
기타1	여행 (비행기값) - 1,200,000원	뉴욕 왕복, 올랜도 왕복, 서부여행
기타2		
합계	22,090,000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*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
(분량 자유)*

저 같은 경우는 복수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 전 미리 학과 조교님에게 인정 받을 수 있는 전공과목을 매칭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. 미리 각 과에서 학점 인정 받을 수 있는 과목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.

옷을 챙겨갈 때 절대 많이 챙겨가지 마세요 ! 한국 스타일과 미국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입는 옷을 많이 챙겨갔다가 한번도 안 입고 그대로 다시 가져온 옷들이 많았습니다(괜히 짐만 늘림). 또 쇼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옷은 최소한으로 챙겨가시길 추천합니다. 어댑터는 많이 챙겨가시고 한국에서 자주 쓰던 물건은 여분을 챙겨서 가져가세요.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미국에서 찾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 자주 쓰던 것들은 몇 개씩 챙겨가세요! 미국에 도착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일 년 동안 영어로 생활하기 때문에 영어 회화가 정말 중요합니다. 영어 회화 경험이 많이 없고 부족하다면 방학 동안 연습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 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교환학생 시작하기 전에 가서 하고 싶은 것들이나 교환학생 생활 동안 이루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놓고 일 년 동안 알차게 지내다가 오세요! 꼭 영어 공부뿐 만 아니라 이곳 저곳 여행도 많이 다니고 친구들과 파티도 많이 즐기고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. 학교생활 최대한 적극적으로 알차게 다 참여하고 땡스기빙, 겨울방학, 봄방학을 이용해서 여행도 많이 다녀오세요!



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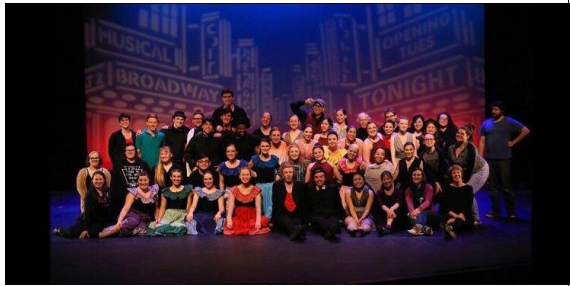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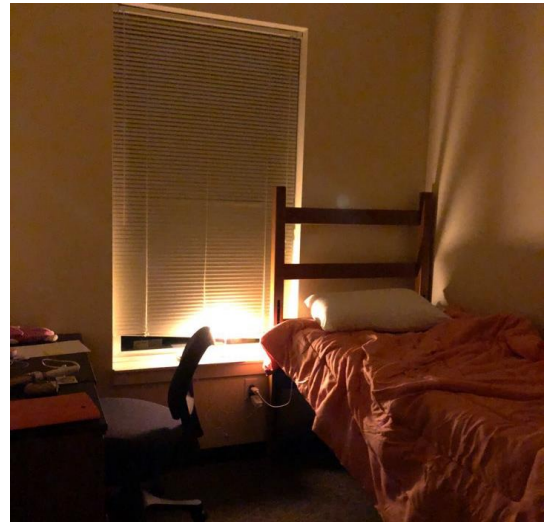
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(분량 자유)

어렸을 때 미국에 잠깐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대학생이 된 후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꼭 다시 가야겠다 라는 다짐을 했습니다. 미국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는 토플 성적이 필요한데, 토플은 혼자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스스로 준비 할 수 있고 저는 혼자 공부를 해서 미국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. 사실 학교에서도 글로벌 빌리지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도착하고 문화적인 적응이나 친구들을 사귀는 것들은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. 미국 대학교는 한국 대학교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경험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. 뮤직, 댄스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수업시간이 너무 즐거웠고, 다른 전공수업들도 이론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교수님, 학생들과의 네트워킹이 위주의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토론/발표 형태의 수업이어서 신선하고 알차습니다. 미국 교환학생 생활을 하는 동안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다져온 영어를 활용하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덕분에 영어 회화의 감도 빠르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. 미국은 일 년 동안 교환 생활을 하기에 정말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. 겨울 방학 때는 미국 친구와 둘이서 뉴욕 여행을 다녀왔고, 봄방학 때는 같이 교환학생 온 언니와 함께 플로리다 올랜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2019 봄학기까지 모두 마친 후에는 미서부 (라스베가스, LA, 샌프란시스코) 여행을 3주 동안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. 미국교환학생 생각이 있으시다면 영어 준비를 잘 해서 꼭 교환학생을 가라고 말해주고

싶습니다.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일상 속에서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적고, 더 큰 나라에 나가서 생활해 본 것과 안 해본 것의 차이는 분명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미국 교환 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얻어 주체적인 사람이 되었고, 나의 주관을 뚜렷하게 갖게 되었습니다. 또한 타지에서 일 년 동안 생활하면서 외국인, 외부인으로의 생활을 해보니 세상은 정말 넓고 내가 지금까지 우물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본인이 원하고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되었고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나가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. 물론 미국에서 일 년 동안 혼자 생활 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많고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씩 교환 생활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미국에 있으면서 homesick도 종종 오고, 다 이해한다고 하지만 가끔씩 느껴지는 문화/인종 차이(차별)에 서러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럴 땐 같은 학교의 한국인들과 또는 똑같이 외국에서 온 학생들과 어울리며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. 저는 대학생들의 꽃은 교환학생이라고 생각하고, 교환학생이 대학생 신분으로써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직 늦었나 하고 생각하기에는 인생은 길고 대학생들은 한번 뿐 이기 때문에 꼭 열심히 준비해서 교환학생을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	
<p>학교 football 경기</p>	<p>뉴욕 타임스퀘어 (winter break)</p>
	
<p>Florida Orlando Disney World (Spring break)</p>	<p>Musical Dance showcase</p>



Spring into dance 공연 참여

Holst Hall 기숙사